우월한 유전자!?

(막7:24-30)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월한 유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월한 유전자라는 말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형이 일반화 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대에 우월한 유전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에 관한 기사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 김태희 씨, 얼굴이 예쁩니다, 누가 봐도 예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언젠가 사진을 봤더니 김태희 씨와 언니와 동생, 부모님과 함께 나온 가족사진이 나왔는데,

우월한 유전자의 가족들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더라고요.
부모가 모두 잘생기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우월한 유전자라는 말이 생겼지요.

참 속상해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뚱보아가씨와 김태희 씨.
도대체 김태희 씨는 무엇을 잘했기에 그렇게 이쁘게 태어나고, 그렇게 날씬한 몸에 그렇게 고운 피부에 또, 머리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뚱보아가씨,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그런 아가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있을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굴도 못나고, 몸도 뚱뚱하고 머리도 안 좋아 공부도 못합니다.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불쌍한 뚱보아가씨는 무얼 잘못 했기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김태희 씨는 뭘 잘했습니까?
참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잘잘못이 없이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미래인생을 한번 살펴봐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미래인생을 한번 살펴봐요.
정말 공평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도 김태희 씨와 뚱보아가씨를 비교하다 보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김태희 씨 입장에 섰다고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타고난 거니까.
그러나 뚱보아가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해서 혓바닥을 깨물 일입니다.

자, 이 우월한 유전자와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뚱보아가씨가 믿음을 갖고 있다, 김태희 씨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김태희 씨 안에서 믿음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열등한 유전자를 타고난 이 뚱보아가씨의 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유전자와 믿음, 또 유전자라는 말을 좀 발전시키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운명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저기 유럽의 정말 정제된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것도 내가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다 운명이에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딸로 태어났어도 좋을 뻔했어요.
이건희 씨의 아들딸로 태어나지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분을 부모로 모셔야 됩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이 운명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기적이야기의 핵심은 딸이 나았다는 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이 어머니와의 대화에 이 기적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라는 지역의 보니게라고 하는 동네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방 땅의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 땅에 근접한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멀리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이방여인이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입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 핵심메시지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방여인인 채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데에 예수님이 놀라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빵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개의 신분을 가지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 자빠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메갈레'라는 말을 씁니다, '메갈레', 즉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이지만 어쨌든 복음서 전체에서 믿음이 크다는 칭찬은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로마 백부장에게.
어떤 유대인에게도 이 말을 써보신 적이 없어요, 열두 제자를 향해서도…

이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 뭐냐 하면 이방인으로써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개종이 가능했으니까, 율법준수를 서약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 개로서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붙인 별명입니다.
왜 개라고 붙였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면 이방지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 바깥에 놓여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운명적으로 개예요,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운명적으로 개로서 태어난 겁니다.
이방지역, 이방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개라고 옳소이다 하고 받아들인 것은 이 여인

이 그런 운명을 거부하거나 불만을 가졌거나,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운명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지방인근 이방지역의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은, 여호와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행사들을 다 전매특허 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꾸할 때에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말은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순발력에 의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으면서 개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자기의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나는 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이방지역이고 이방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아직도 내 부모님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살았지만 남편이고 모두 다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들은 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개도 주인의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주님이 깜짝 놀라 자빠지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그런 걸까요?
한 사람의 운명, 우리가 유전자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육체에 실려 있는 운명입니다.
육체에 담겨진 운명입니다.
운명이란 것 자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관계해서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운명적으로 이방인이 되어 태어났고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그 신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운명과 숙명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찾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지역에서 태어나 이방인으로 살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이방인인 채로 유대인이 찾는 그 여호와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육체에 실려진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 속에서 묶여서 육체와 함께 '나'로 존재합니다.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육체의 운명, 이 유전자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으로서 운명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하나님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육체에 담겨져 있는 운명으로서의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도 내가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운명 이전에 계신 분이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내 육체의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더 먼저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바로 그 틈새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돌진해 들어오는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녹다운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 여호와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로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이방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 육체에 실려져 있는 운명에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의 땅에서 태어나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운명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엉뚱한 주소지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매특허처럼 얘기했어도 아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으니까.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 내 육체의 운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생기고 그 부모님 밑에서 그런 IQ를 갖고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는 한, 운명에 갇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태희 씨와 동네 뚱보아가씨.
김태희 씨가 우월한 유전자예요, 김태희 씨가 운명적으로 타고난 유전자가 우월합니다.
동네 뚱보아가씨가 굉장히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믿음에 둘 다 들어갔습니다.
뚱보아가씨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가치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명예고 인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태희 씨,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불리합니다, 우월한 유전자가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우월하게 느껴지는 유전자, 우월한 운명이 왜 불리할까요?
하나님은 유전자와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월한 유전자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이게 믿음이니까), 우월한 유전자로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월한 유전자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불리한 유전자입니다.

뚱보아가씨,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신다'
그래서 마음이 뚱보 된 그 모습 전체를 다 내버리고, 뚱보로 태어난 운명에서 묶여 있다가 그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운명을 놔두고 -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불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유전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 마음은 그 뚱보 된 현실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뚱보로 태어났다는 이 운명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둬요, 성형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린 딸이 나았어요, 무슨 얘깁니까?
분명히 운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듯이 기독교에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냐 하면 다 멸망해야 될 운명을 갖고 있어요.
이 육체의 운명이 있고 내 마음이 이 육체에 묶여있는 한 그 자체가 죄이고 멸망의 운명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때 이제는 운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적합한 일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 상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빛으로 섭리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이제는 운명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때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바람에 더러운 귀신들린 딸도 낫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바람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주님에 의해서 확증되면서, '그래 맞다, 네가 이방인의 신분 안에서도 이방인으로 태어난 운명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은 믿음대로 하나님께로 네 마음이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라'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역사해 나가시면서 더러운 귀신도 물러나간 겁니다.

우월한 유전자, 이 육체에 걸려있는 운명, 우월할수록 불리한 운명이요 불리한 유전자입니다.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운명 이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장애인이라는 운명 속에 갇혀 계시지 말고, 그걸 극복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려 하지도 말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놔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운명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운명 아닌 창조적 뜻을 따라 활동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월한 유전자가 불리한 유전자일 수 있습니다.
열등한 유전자가 유리한 유전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로 인하여 시작되는 운명의 시작 이전의 하나님은 계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기에 그런 것임을 알고 내 몸의 상태, 내 몸에 주어진 운명에 갇혀있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운명을 빠져나와 운명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